

살을 베어서 병든 비구를 구제하다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48)

우바사나의 공덕

비뉴건국의 사람들은 대부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는 '불(佛)·법(法)·승(僧)을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 그때 우바사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사위국에 갔다가 바사닉왕에게서 일을 다 끝마치고 신앙이 돈독한 우바새들에게서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 부처님을 뵈고자 하여 기원으로 갔다. 부처님께서 그때 여러 대중들을 위하여 5계의 법을 말씀하시고 계셨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우바사나도 부처님에게 계를 청했고 5계를 받았다. 부처님께서 또 <법구경>을 주시면서 외우게 하셨으므로 우바사나는 한 밤중까지 <법구경>을 외우고 있었다.

비사문천왕이 수천의 아차를 거느리고 남방의 비루특차에게로 가려다가 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찬탄했다.

"장하십니다. 누이여, 법요(法要)를 잘 말씀하십니다."

우바사나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공중에서 소리만 들릴 뿐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사문천왕이 대답했다. "나는 귀왕(鬼王) 비사문천입니다. 법을 듣기 위해 공중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바사나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하늘이고 나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누이라고 부르십니까?"

비사문천이 대답했다. "부처님은 법왕이시고, 또한 인간과 천상의 어버이십니다. 같은 법의 소리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바사나는 크게 기뻐했다. 그의 머슴은 언제나 숲으로 들어가서 땀나무를 해왔다. 뒤편 아침에 나무에 올라가다가 멀리서 사리불과 목련과 5백의 비구가 숲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참선하고 경 외우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다. 우바사나는 한량없이 기뻐하면서 머슴이 말했다.

"세존께서는 좋으신 말씀을 주인에게 말씀하시더니 다섯 가지 보시를 갖추어 베푸십시오. 지금 음식을 장만하십시오. 제가 아까 주인의 말씀이라 하고서 두 분 존자와 5백 명의 제자들을 청했으니, 오늘 오셔서 공양하십시오."

존자와 여러 비구들이 가사를 입고 발우를 가지고 자리에 나아가 앉자 예배를 하고 손수 물을 돌리고 갖가지 음식을 올리니 향기로운 맛이 두루 갖추어졌다. 사리불에게 말했다.

"저에게 아들 넷과 남편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님 말씀을 알지 못해 제가 만약 삼보에 공양하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하면 이내 시샘하고 성을 냈다. 그러나 저는 신행을 닦고 보시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고 위축되지 않아 마침내 수다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리불이 말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세존께서는 해가 저물면 비견지림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우바사나는 스님들이 떠나간 뒤에 이내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여러 스님들이 묵고 있는 곳을 살펴보다가 어느 병든 스님이 굴 안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아픈 곳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자, 스님이 대답했다.

"4대가 고르지 못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신선한 고깃국을 먹으라고 했습니다."(<마하승가>에서는 '비구에게 언제나 공양을 하거나 약을 먹게 하는 데는 고기를 쓴다.' 라고 했다.)

우바사나가 말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문 석가의 제자가 사람 고기를 먹었다." 부처님께서 그로 인해 "비구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정하셨다.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를 위해 부처님과 스님들을 여기로 청하셔서 공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숲으로 들어가서 부처님을 청했다.

"내일은 저의 집에서 공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함께 자리에 나아가 앉으시고 물으셨다.

"우바사나는 어디에 있느냐?" 스님들이 대답했다. "이랬습니다."



삼화·강병호

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15일이어서 국법으로 살생을 금하는 날이었다. 우바사나는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고깃국을 장만하지 못했다. 우바사나는 곧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고요한 방에서 스스로 목욕하고 자신의 넓적다리 안쪽의 살을 베어냈다. 그리고 모전으로 싸고 여러 약재들과 함께 달여서 국을 만들어 병든 비구에게 보냈다. 비구는 고깃국을 먹자마자 병이 나았다. 우바사나의 남편이 이윽고 돌아와서 부인의 모습이 이상해 보여 물었다.

"당신은 왜 이리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제가 아팠습니다."

남편은 곧 의원을 불러 부인을 살렸으나 알 수 없어 집안사람들을 다그쳐 물었다. 그러자 여중이 사실을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밖으로 나가서 크게 부르짖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러오너라." 남편이 부인에게 말했다. "당신의 스승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우바사나가 대답했다. "아파서 일어날 수 없다 말씀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가서 말하여 일어나게 하라."

아난이 가서 "부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고 평상에 그를 싣고 부처님께 왔다. 우바사나가 부처님 앞에 섰다. 그러자 부처님의 광명이 그녀를 비추고 그녀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 우바사나는 곧 일어나 부처님께서 예배했다.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시자 아나함의 도를 얻었다. (<우바사나경>에 나오며, 또 <현우경>에도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48



마음이 가까우면 천리도 지척

서울에서 부산도 한 걸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마음과 마음이 길이라도 있는 것일까. 한 걸음에 다가가 만나기도 하고 또 걸음에 멀어지기도 한다.

지난 11월 15일은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결혼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아침공양을 하면서 약속을 했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통도사에 다녀오고 외식도 하면서 저녁엔 영화도 보기로 했다. 그런데 아침 설거지를 마치고 평소엔 전화도 잘 하지 않았던 현대불교신문 최정희 편집이사님이 생각이 났다. 늘 어머니께 편찮으셔서 걱정이라던 말이 생각이 났다. 나는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었다. 웬지 무슨 일이 있을 것만 같아 본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 이사님과 함께 근무하는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 "최 이사님한테 별일 없으신가요?"하고 물었더니 "예, 오늘 아침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영단을 꾸미는 중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나의 예감에 너무 놀라서 "세상에 이런 일이..."를 되뇌었다. 나는 다시 남편과 의논한 끝에 계획을 바꿔 서울로 조문을 가기로 했다. 아무리 멀어도 꼭 다녀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최 이사님과 오랜 전부터 서로 챙길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던 인연이며, 가끔씩 하게 되는 전화

기를 가원하며 남은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했다.

문상을 마치고 최 이사님을 보니 얼굴이 많이 지쳐 있었고,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얘기할 때는 젖은 눈에 다시 눈물이 넘쳐흘렀다.

누구나 이별은 아프고 슬픈 일이다. 그에게는 한 동안 힘든 일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은 그 어떤 말로도 그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 했으니 그보다 다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를 위로했다. 사람은 남을 보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나는 그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모 자식 사이란 걸 또 한 번 느꼈다.

문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서로를 챙길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 날 아침의 '예감'이 웬지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마음이 가까우면 서울과 부산도 한 걸음이란 걸 느낄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별님 영가

오늘은 평소엔 잘 알고 지내던 도반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도반은 오래전부터 관절이 좋지 않아 고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별침을 맞고 있는 중이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나의 지난날이 생각났다. 10여 년 전에 나도 이와 같이 퇴행성관절염을 앓았다. 그때 아랫집에 사는 아가씨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배운 별침이라며 아파하는 나를 치료 해 준 적이 있다. 처음엔 모르고 시작했는데 별침은 침을 놓고 난 후 두 시간 내로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별침에게 너무 미안하고 불쌍하고 가슴이 아파 드는 할 수 없다며 중단했지만 이미 몇 십 마리의 별침이 죽은 뒤였다. 그해 나는 우리 절에서 매년 해오던 참회 산림법회를 일주일 내내하게 되었을 때 '대원성 복유 별님 영가'로 축원을 올리며 참회기도로 용서를 빌었다. 별침선생은 "별은 여차피 오래 못가 죽을 것인데 이렇게 남의 아픔을 치료해 주니 얼마나 좋은 일 하고 가느냐?"고 했다. 생각하기 나름인지 몰라도 나는 불자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서 결코 편히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일주일 내내 기도 시간마다 스님의 큰 목소리로 '별님 영가'를 부르니 많은 신도들이 쉬는 시간에 내게 묻기도 했다. 자기네들도 염소며 닭이며 개 또는 소가지도 집에서 키운 짐승들을 잡아먹었던 역사를 고백하며 영가 축원으로 올리고 싶다고 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부터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어떤 생명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음과 미안함이 자비심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인과라는 꼭 있는 법이다.

부산 언꽃모임회장

지극히 마음 쓰면 예감하게 돼

'별침과 별들의 죽음'을 보고...

를 통해 어머니 얘기를 자주 들어왔었던 터라 웬지 늘 가까이서 뵈는 듯했다. 그의 어머니를 뵈 적은 없었지만 최 이사님의 효심은 가끔씩 주고받았던 전화 통화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효심 깊은 최 이사님을 보며 존경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늘 '효도'에 대한 애뜻함이 있었던지라 병상에 계신 어머니라도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을 만큼 이사님의 효심이 부러웠다.

우리는 늦은 오후에 병원에 도착했다. 많은 조화들이 빈소를 채우고 있었다. 나는 영단의 영정으로 그 분을 처음 뵈게 되었다. 생전의 곱고 인자하신 어머니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본 최 이사님은 내가 너무 멀리 있어 연락하지 않았다며 먼 걸음하게 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먼 걸음'이란 마음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 생각했다. 마음만 있으면 부산 아니라 그보다 더 먼 길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멀면 같은 서울, 아니 옆집에 살아도 먼 길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영전에 향을 올리고 고인을 위해 반야심경을 마음으로 조용히 올렸다. 부디 극락에 드시



대법사 창건 기념 철야 정진 기도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창건을 봉축하며
중생구제의 서원으로 철야정진기도를
봉행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불자님들의 수희 동참 바랍니다.



700고지 정상 약사기도도량 대법사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오원 2리 109-1번지

몸 아픈자 몸 치유하고
마음 아픈자 마음 치유하고
실패한 자 다시 일어 남시다.

일 정 | 매주 토요일 철야기도
오전 11시 시작

입 제 | 첫 철야기도 2013년 11월 2일

문의 및 접수 | 033)342-3372
070-4155-3372

